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6월 3일(금)
(윤력 5월 3일)
Пятница
3 июня 2022г.
№ 21 (1198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위대한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쉬킨의 탄생일 6월 6일은 푸쉬킨의 날이다. 2011년 부터 이날을 '러시아어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푸쉬킨 동상.

(이예식 기자 촬영)

투자 보호 및 촉진 협약에 대한 법률 개정안 국무위원회 투자위에 상정

국무위원회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이고리 레위틴과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투자'를 주제로 국무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지역들 간 회의에서는 투자보호 및 촉진에 대한 협약 체결에 요구할 수 있는 갱신된 투자 매개체들이 발표되었다. 투자보호 및 촉진 협약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차관 무라트 케레포브가 발표했다.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투자계획 전개에 따른 사업에 지역 정부의 동참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들은 지역 경제들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을 미리 평가하고, 기획에 대한 체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문서는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의 안정적인 실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무라트 케레포브가 밝혔다.

투자보호 및 촉진에 대한 협약 체결이 국가적 측면에서는 매우 책임감이 무겁고, 중대한 전개이다.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운영의 규정된 법안과 그들이 기대하는 특혜들을 실제에 있어 장기간 고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류의 정책을 채택하기에 앞서 지역

상황, 지역 정부,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되는 변경 사항들은 우리가 투자보호 및 촉진 협약에 따른 체결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획이 지역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일 때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서 승수효과(예를 들면 정부나 민간 기업이 새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일부가 임금으로 지불되고 나머지는 생산재 구입을 하게 되어 그 관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며, 한편 생산재 구입에 지불된 비용도 생산재 생산에 관계된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협약이 체결되고, 기획은 실현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에 주는 이익이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때는 기획을 접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정부들의 투자보호 및 촉진 협약 합의 과정에 포함된 요소들은 예산의 수익과 지출 부분을 더 잘 진단하게 하고, 노동자원의 필요성을 제때에 결정하며, 필요한 제반시설 개발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획하게 한다."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투자보호 및 촉진 협약에 대한 법에 다른

개정안들도 곧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할 법안들은 안정적인 조건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구성된 획기적인 투자계획의 새로운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반시설 구축 지출비용 보상에 대한 접근 방안들이 단순화되고, 개정되었으며, 사업에 있어서 투자보호 및 촉진 협약 하에 자금 대출의 기회가 생겼다.

새로운 투자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한 가운데 지역과 관계없이 통합 투자 노선을 조성하도록 했다. 투자의 기준은 러시아 연방 45개 행정자치단체들에 도입되어 이미 올해 상업 연맹이 이것을 질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회의에서 투자 안정화를 위한 지역들의 요청들을 검토하여 8개 요청안이 승인됐다.

그중에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보조금을 탈수 있는 변경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 확보의 기준을 미뤄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들도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중소기업들의 기술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해 보조금 선정 확대도 요청했다.

새고려신문 73년간 독자들과 함께

1949년 6월 1일은 조선 노동자(현 새고려신문)지의 창간일이다. 벌써 73년이 지났다. 러시아의 유일한 한국어 민족지가 먼 길을 걸어왔다.

이번 생일 축하는 5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작년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신 애독자 전체편 할머니께서 왓츠앱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다. 신문 창간일을 잊지 않으시고 신문사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연락을 주시는 어르신은 축하 인사로 "앞으로도 더욱욱 하시는 사업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족들에게도 언제나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라고 쓰셨다.

다음날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 과일바구니와 금일봉을 전달했고, 다른 지인들도 축하해주었다.

우리 신문과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연을 지키시며,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하반기 구독 신청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고려 신문은 더욱 새로운 소식들로 독자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겠습니다.

새고려신문사 대표 배 빅토리아 드림

단신

사할린주 최저생활비 19,000 루블리까지 올라

사할린주에서 1년간 세 번 최저생활비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물가상승의 가속화를 배경으로 2021년 12월 말에 조정되었다.

새로운 변경은 당면한 경제적 불황과 대러 제재 시행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상황들은 물품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제품, 식품, 서비스 가격을 상승시켰다.

따라서 최저생활비를 비롯해 최저근로 임금, 연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국무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상승은 몇 년간 최저생활비가 10% 오른 것이다.

현재 사할린주 전체 최저생활비는 1만8천900루블리로(17,200루블리에서), 최저근로임금은 2만6천루블리로(18,800루블리에서), 아동 수당 1만9천700루블리로(18,000루블리에서), 연금은 1만6천300루블리로(14,800루블리에서) 올랐다.

사할린주 도서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도서전 개최

5월30일(월) 러시아의 이웃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제로 한 <훌륭한 이웃>도서전이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의 수필과 전기를 비롯해 지역 명소에 대한 정보와 소설도 읽어볼 수 있다. 전시회는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2층 국제협력정보센터에서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581루블리 5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한인 동포들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소개

올해 1월 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시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인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2년 3월에 이 단체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단체의 이름은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공식 이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 한인단체 <사할린 한인>).

지난 5월 31일 새고려신문사를 찾아온 단체 임원들이 본사 배순신 기자와 새로운 한인회의 목표, 과제, 사업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선 단체 및 임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천영곤(알렉세이 아나톨리에위츠) <사할린 한인>시한인회 회장: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단체 설립 발의 그룹은 1월 말부터 움직였고, 그 동안 여러 행사와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우리 한인회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의 목적은 아마 모든 한인회 목표와 비슷합니다. 물론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사회에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한인들이 단결해야 하고, 민족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대중화하여 정부·사회단체·사업가 등과 소통을 하고, 공동으로 여러 기획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과 재외동포들과 교류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단체는 2세들이 많아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한인회 회원으로 공식적으로 80

여 명이 가입했고, 왓츠앱의 단체 채팅방에는 100명 이상의 있습니다. 그외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회비는 연 100루블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리 단체에 초대합니다.

시한인회의 운영위원회는 현재 4명으로 - 부회장 유영희(나탈리아 야코블레브나), 위원 안수학 씨와 김 류보위 씨, 그리고 저. 감사는 한정자(스웨틀라나 페트로브나)씨가 맡고 있고, 사무국장으로는 배영희(안젤라 아나톨리에브나)씨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자: <사할린 한인>시한인회에서 활동 동기와 담당 분야는요?



유영희 부회장: 저는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업을 돕고 있었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싸우지 않고 단결했으면 합니다. 우리 1세 어르신들을 위해 사할린 단체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세들을 위주로 하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2세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단체에서 <클럽 2000>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럽 2000>의 멤버들은 매월 2000루블리를 냅니다. 이 돈은 자원봉사 활동과 자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중행사 조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친목을 위해 모임을 갖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며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학 위원:

천영곤 회장님과 저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분이 제가 운영하는 <오스트로브>동양무술센터의 여러 활동을 후원하기도 했고, 사할린 라이온스 클럽도 함께 했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푸는 분이요 해서 이 단체에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전부터 해온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차세대 양성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

위원으로서 모든 행사 조직에 참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발벗고 나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스포츠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학생 활동 관련 일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체를 설립할 때 사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들 적극적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주로 60대 초반이라서 그런지 소통이 잘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활동합니다.

김 류보위 위원(폐체뉴쉬키 사할리나(사할린의 과거)회사 부사장):



저는 2년 전에 처음 사할린 한인사회사업에 접촉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활동에 나선 적이 없었고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동포들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인회 운영위원으로서 저는 문화담당입니다. 그 동안 우리 단체가 재미있는 휴식을 위

한 대중행사 4개를 펼쳤는데 음력 설맞이 행사, 여성의 날 행사, 봄과 노동의 날 행사와 지난 주말에는 오호츠크에 마을에 있는 휴양지에서 야외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문화센터에서 처음 진행한 세 가지 행사에는 200-250여 명씩 참석했고 야외잔치에는 9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공연과 재미있는 단막극을 준비하는데 시나리오는 우리가 직접 아이디어 내서 씁니다. 이런 작업은 제 책임이라 할까요. 행사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유치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리도 우리가 직접 합니다. 행사 분위기가 좋고, 즐겁고, 차려놓은 상도 맛있다고들 칭찬합니다.

천영곤 회장: 이런 행사는 유 나탈리아 부회장이 재정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야외 행사는 그 외 세 분이 후원하셨습니다. 예리나 엘베라, 최옥수 씨와 최 올라씨에게 고맙다고 다시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배영희 사무국장:

저는 처음에는 그저 높고 춤추고 하는 대중행사가 의미 있는가 싶었는데 이 행사에 참가할수록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친해지면서 단결하고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저는 임원들보다 약간 어리긴한데 이분들과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생겼더라고요.

시한인회에 저를 천영곤 회장이 초대하고 사무와 기획 진행을 부탁하셨어요.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단체는 여러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계획들도 많습니. 대중행사 외에는 자선행위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장애인 기숙 시설도 찾아가고, 트로이츠크에 고아원도 후원할 계획입니다. 주내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식품선물세트도 나눠드렸습니다. 그외 한민족 문화 계몽과 관련한 여러 기획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활동에 함께 하실 분들을 <사할린 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 초대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에 대한 영상, '관광 소개' 축제·경연 대회에서 우승

'디보 유라시아(Divo Eurasia)' 제 5회 국제 관광 경연 대회(5월 25일 -27일)에서 사할린의 영상들 4개가 1위를 차지했다고 주 관광부가 전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연례 '관광 소개' 축제·경연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러시아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출전한 200개 이상의 영상작들이 25개 부문에서 우승을 두고 경쟁했다.

사할린 관광정보센터가 신청한 11개 영상 중 9개가 전문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되었다. <관광 상품. 문화 및 교육적 관광>부문을 콘스탄틴 예피모브의 '사할린의 역사적 시설들' 영상이 우승.

<수직적 형태의 영상. 관광에 대한 영상(15초)>부문을 콘스탄틴의 또 하나의 영상 '아니와 등대'가 우승.

<관광 상품. 생태적 관광>부문에서 한 여행사의 제작 영상인 '아니와 등대의 범고래'가 우승.

<수직적 형태의 영상. 관광에 대한 영상(60초)>부문에서는 예브게니 네즈데로브의 '바다로의 회귀'영상이 우승했다.

로리키 오 사할린에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туристских презентаций

Четыре первых места заняли видеорол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V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истском конкурсе Divo Eurasia(с 25 по 27 мая),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туриз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ежег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туристских презентаций.

Всего за победу в 25 категориях боролись более двухсот работ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Десять из одиннадцати видеороликов заявил и защитил перед экспертами жюри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ско-инфор-

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 Лучшим в номинации "Туристские продукты. Куль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ый туризм" стал видеоролик Константина Ефимова "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Сахалина".

· Ещё одно видео Константина "Маяк Анива" одержало победу в категории "Видео в вертикальном формате. Видеоролики о туризме (до 15 секунд)".

· В номинации "Туристские продукты. Эк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ил ролик одной из туркомпаний "Косатки на маяке Анива".

· В категории "Видео в вертикальном формате. Видеоролики о туризме (до 60 секунд)" лучшим было признано видео Евгения Нездерова "Возвращение к морю".

두 곳의 사할린 유기 동물보호소에 결 혼식에서 모은 먹이 전달

지난주 유기 동물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다.

유기된 개와 고양이, 족제비 등이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동물보호소 2곳에 엘리나와 야콥, 젊은 한 쌍이 자신들의 결혼식에서 수거된 동물 먹이를 전달했다. 이들은 착한 일을 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결혼식 하객들에게 꽃 대신 동물을 위한 먹이를 가져오도록 부탁했다. 이들은 결혼식 후 개와 고양이를 위한 먹이 보따리를 유기 동물 보호소들에 전달해 자원봉사자들이 놀라워하며 기뻐했다.

보통은 활동 단체와 대학생, 학생들이 모은 먹이를 가져오는데 결혼식에서 조성된 먹이 전달은 획기적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보며 보호소의 동물을 돕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이를 위해 반드시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 하는 건 아니다.

Двум сахалинским приютам передали корма, собранные на свадьб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оизошло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очень тронуло волонтеров, помогающих бездомным животным. Дву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приютам — "Пес и кот" и "Ласка" — передали корма, которые были собраны на свадьбе молодой пары, Элины и Якова. Ребята решили

сделать доброе дело и попросили гостей своего праздника приносить им вместо цветов корм для животных. Пакеты с собачьим и кошачьим пропитанием после свадьбы развезли по приютам, чем удивили и обрадовали волонтеров.

Бывает, что приютам привозят корма, собранные рабоч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студентами или школьниками, но сбор,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на свадьбе, — это что-то новенькое. Возможно, кто-то, глядя на такой поступок, тоже захочет порадовать хвостатых. Впрочем, для этого необязательно выходить замуж или жениться.

매주 금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군악대 연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18시 '음악의 저녁'이 '포베다(승리)' 역사기념 종합 박물관 앞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올레그 쉬갈로브 군악대 지휘자의 지휘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군 관악대의 공연을 즐기도록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초청한다.

공연 곡목에는 유명한 곡들인 '카튜샤', '에흐, 도로기(아, 길들)', '스무글란카(까무잡잡한 소녀)', '베를린의 카자키', '승리의 날' 등이 있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솔리스트 라리사 카차키나가 공연하고 '초르나야 카자츠크(검은 눈동장의 카자크 여자)', '전쟁이 없었더라면', '남자들', '사할린 왈츠' 노래를 할 것이다.

이 행사는 '음악은 영원하다'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будет игр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пятницам

С 1 по 30 июня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в 18 часов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обед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музыкальные вечера.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глашают насладиться композициями военного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военного дирижера майора Олега Шигалова.

(8면에 계속)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현대 고려인 인물 연구' 총 15권 출간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에서는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해외한인연구' 지원과제에 '현대 고려인 인물 연구'가 선정되어 2016년~2019년까지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한인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했고, 그 결과물을 총 15권의 총서(1~8권은 한글, 9~15권은 러시아어이며, 1~7권은 러시아어의 한글 번역본임)로 출간했다.



160여 년 전 궁핍과 지방 관료의 탐학을 피해 두만강 너머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은 지금 4, 5세대를 넘어 6, 7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첫 이주 당시 13가구 40여 명으로 출발했던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현재 50만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구소련 시기 소비에트 공민으로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고려인 사회는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인해 대격변을 맞이했다. 소련은 해체되어 15개의 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예전의 소련 공민들은 러시아 국민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민 등으로 나뉘어졌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생활환경이 송두리째 변화했다. 고려인들은 독립된 국가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했다. 급격한 이주가 뒤따라왔다. 이전까지 자신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왔던 집단농장과 도시의 직장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러시아는 곧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기나긴 경제 침체로 접어들었고,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고려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냉전은 끝났지만 그 그늘이 아직 드리워져 있어 역사적 고국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변화와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기도 했다. 더구나 고려인들은 강제이주라는 극한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경험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고려인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며 그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계에 입문하거나 관계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며 뛰어난 수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도 하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구소련 시기에 이어 학계에서도 존경받는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각지에서 고려인협회 또는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등을 조직하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이 학술총서는 오늘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미래는 어떠한지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고려인들의 현재 모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과 세대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연구방법을 동원했다.

지역은 다음과 같이 크게 8개로 나누었다.

- ① 러시아의 중심 - 모스크바와 유럽 러시아, ② 고려인의 고향 - 러시아 극동 연해주, ③ 중앙아시아로부터의 탈출구 - 시베리아 일대, ④ 새로운 삶을 찾아서 - 남부 러시아, ⑤ 강제동원의 땅 - 사할린, ⑥ 강제이주 된 터전에서 1 - 카자흐스탄, ⑦ 강제이주 된 터전에서 2 - 우즈베키스탄, ⑧ 재이산 - 대한민국과 유럽, 미주의 고려인.

세대는 다음과 같이 세 세대로 나누었다.

- ① 은퇴한 원로들 - 선배세대, ② 왕성한 활동 - 기성세대, ③ 고려인의 미래 - 신진세대
-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지역별로 1권씩 총 8권의 학술총서를 저술했다. 러시아로 작성된 총 7권의 학술총서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일반대중, 관련 기관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했다.

학술총서는 동일한 연구방법과 서술체계를 갖추고자 했지만 지역적 특성의 차이, 고려인들의 지역별 분포의 차이, 공동연구원들의 서술 경향 등에 따라 각각 공통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면서도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본 사업단은 학술총서를 통해 고려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인과 고려인들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는 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각국 관계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래서 본 사업단은 고려인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서술하고자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고려인 인물들을 객관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총서로 작성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나름의 성과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부족, 자료의 부정확, 번역의 오류 등 학술총서의 문제점은 본 사업단, 특히 연구책임자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질정은 앞으로 고려인 연구에 더 매진하라는 애정 어린 책찌질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다.

2022년 5월
연구책임자 **홍웅호**

2022년 3개월간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서 6,000여 명의 사람들 떠나

1월 - 3월간 사할린주에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주민신분등록소에는 1,213명 출생, 2,123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910명으로 2021년 유사시기에는 564명이었다. 지방 3개 지역 - 쿠릴스크, 세웨로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은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의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에서 혼인 건수는 721건, 이혼은 532건, 반면 2021년 유사시기에는 혼인 669건, 이혼

578건으로 기록됐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민문제 관리국에 따르면 2022년 1월 - 3월간 사할린과 쿠릴 지역 방문자는 3,787명으로 그중 49.4%는 상시 거주자이다. 사할린을 떠난 사람은 5,899명으로 그중 85.9%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주 내에서 주거지를 변경한 사람은 1,302명이며, 주민 감소는 2,112명에 달한다고 사할린 통계청이 전했다.

[신PD의 K 리포트]

글, 그림<동물의 왕국>은 사자가 연출하나요?

1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평PD로 오후 시간대 성인 대상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곧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부서 공지가 뿔었습니다. 개편은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변화가 제법 큰 이벤트입니다. PD들은 프로그램을 옮겨갈 수 있는 기회라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논치를 보니 부장님은 밤 10시대 아이돌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떠나고 싶어서 부장님께 밤 10시를 하겠다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자정 넘어 끝나서 PD들 대부분 기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케이'를 기대한 제게 부장님은, "신PD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돼."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으니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을 못할 만큼 '늙었다'는 부장님 반응에 화가 났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대꾸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TV유치원>은 유치원생이 만드나요? 또 <동물의 왕국>은 사자나 호랑이가 연출하겠네요?"

운운해보던 부하직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따져들자 부장님은 당황해하며 저의 '기발한' 비유에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그일 이후 프로그램 만들 의욕이 떨어져서 한동안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 ◇ ◇

얼마전 친구가 '재미있다'며 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니 조회수 1천4백만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명 놀이공원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에서 고객 안내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분 30초의 짧은 콘텐츠가 1천4백만 넘는 조회수를 달성한 것을 보고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영상에서 23세의 김하나씨는 '영혼없는' 눈빛으로 단조로운 리듬에 맞춰 랩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https://youtu.be/ptCIhrBnWn8>) 인기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보는 과장된 몸짓이나 말투도 없고, 그냥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과 느릿느릿한 발걸음, 반복되는 리듬에 반복되는 멘트가 다였습니다. 놀이기구 탈 때 옷이 젖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라고 크리에이터들의 '드림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제가 에버랜드 관리자였다면 '뭘 일을 이렇게 열정 없이 하나'고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주인공에게 K팝 영상을 보여주며 '카메라를 씌어 먹을 듯이' 달려드는 아이돌들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했을지도요.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강조해온 저로서는 처음 이 영상을 보고 폭발적인 인기 이유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보내준 친구 특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 여자 표정이 우리 아들 하고 똑같아. 무슨 말을 건네도 그냥 무표정이야. 애가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가 좋아하는 게임 할 때도 이래. 지 여친하고 똑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요즘 애들이 다 이런가봐. 이 영상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드네 ㅠ'

에버랜드 김하나 씨의 영상 클립은 지금 '신드롬'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눈빛에 '소울리스(soulless)'라는 애칭을 붙여주고 '떠받들어 모시는' 의미의 '좌(座)를 더해 '소울리스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언론들이 인터뷰 기사와 분석 기사를 앞다퉈 쓰고 있고, BBC코리아 같은 외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만 하는 프로야구 시타(始打)에 초대받았고 또 에버랜드 공식 광고도 찍었습니다. 기사에 붙은 제목들을 보면 '영혼없는 눈빛에 1200만 열광... 싸이도 울린 에버랜드 알바생', '소울리스좌, K직장인 마음 저격'같이 긍정 평가 일색입니다. 한 일간지 논설위원은 '영혼없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인공 인터뷰를 인용하며 '노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 상태'라는 해석을 달아줬습니다.

그냥저냥 일하는 무표정에 다른 세대들까지 끄덕끄덕하며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 기자들이 쓰는 많은 분석 기사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1천 4백만 조회수가 그 근거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여기에 타당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대표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다들 매가리가 없어서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다 소울리스좌 현상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밤 10시 아이돌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 많다고' 거절당한 제 억울함은 타당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동물이, 또 <TV유치원>을 유치원생이 연출하고 했던 제 비유도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동물이 아니어도, 또 유치원생이 아니어도 동물과 유치원생의 언어, 몸짓, 표정에 담겨진 의미를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대의 벽을 넘어 같은 세대끼리만 통용되는 코드(code)를 '디코드(decode)'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내준 제 친구처럼 무뚝뚝한 아들의 언어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표정이 귀찮음이 아니고 느릿느릿함이 게으름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영혼 없음. 그러나 할 일은 함'이라는 '소울리스좌' 정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원섭 (KBS 라디오 제작국장.shinwonsup@kbs.co.kr)

«ОСТРОВ В МОРЕ» И ДРУГИЕ КНИГИ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в СахГУ студенты направления нач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зучают два языка – англий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профессии на младших курсах будущие учителя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обязательно слушают курс «Дет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При этом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предполагает и наличие долгосрочных заданий по дисциплине с выходом на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е студентам проблемы. Вот и в этом году при обсуждении тетралогии о двух австрийских девочках, оказавшихся в годы войны в Швеции вдали о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студенты рассмотрели книгу скандинав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в общемировом формате, обратившись к переводам повестей на разные языки мира и восприятию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разных культурах.

Особенно неожиданным стало обнаружение студентками Бя Полиной и Пяк Ми Дя наследия Анники Тор (아니카 토어)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переводе Им Чхон Хи (임정희). Оформ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издания четырех томов сильно отличается и от оригинального, и от книг на других языках: сегодня прозу писательницы читают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в Европе, но и страна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ллюстрации на обложках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ередают ту трагедию, которая выпала на долю Штеффи и ее сестры Нелли: это непонимание и отдаление двух сестер в самом начале, а потом – сближение в самом конце войны, когда девочки повзрослели и испытали новые потери. Первая книга тетралогии «Остров море» звучит как «Остров на краю света» (세상 끝 외딴 섬). Изменено и название других частей: «Глубина моря» – на «Драгоценные люди» (소중한 사람들), а «Открытое море» на – «Другие люди» (또 다른 세상으로). Очевидно, что это сделано для лучшего понимания истории швед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корейскими читателями.

Впрочем, островная тематика оказалась и очень близкой к знакомым нам реалиям, поэтому в конце трехчасового обсужд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й Анники Тор студенты предложили несколько авторских иллюстраций к наиболее понравившимся страницам книги «Остров в море» и другим ее частям. На многих изображениях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море, скалистые берега, удаленные друг от друга маленькие дома и преодолевающих долгий путь по острову героини книги. А вот Пяк Ми Дя свое визуаль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прочитанного связала с самым началом книги – сцене прощания девочек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на вокзале в Вене.



Возможно, что с творчества Анники Тор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откроют для себя новых авторов, пишущих для детей в России и за рубежом в наше время.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работы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читательских эссе, посвящен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ю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Син Кёнсуку(Шин Кун-Суук)

Книга о пожилой женщине, маме, жене Пак Соньо, которая исчезает...

Юлия Нужина(диплом 2-ой степени)

Так много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нужно ценить то, что имеешь. Как часто люди поздно понимают драгоценность потерянного.

Когда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пропала, её дети поняли, что совсем её не знали. Никто и никогда не интересовался её душой 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никто о ней не заботился, все принимали её заботу, как должное.

Книга для меня не только посыл об уважении, о трепетном отношении к маме и других любимых людям, хотя, конечно, и об этом тоже. Но меня роман заставил задума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 том, что мало, кто видит свою маму вне этой роли. Мы забываем, что ей тоже иногда хочется побыть ребёнком. Мама тоже о чём-то мечтала, чего-то хотела, у неё были свои страхи.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многим жертвовала ради своих детей.

Когда-то я прочитала книгу «Сильна как смерть» Ги де Мопассан. Он писал: «Человек любит свою мать, почти не сознавая и не чувствуя этого, потому что это для него так же естественно, как дышать, и лишь в минуту последнего расставания он понимает, как глубоко уходят корни этой любви. Никакая другая привязанность несравнима с этой, потому что все остальные привязанности — дело случая, а эта — врожденная, все остальные возникают у нас позднее, случайно, а эта живет у нас в крови со дня нашего появления на свет. И потом, потом вместе с матерью уходит половина нашего детства — ведь наша жизнь, жизнь маленького ребенка, принадлежит ей столько же, сколько и нам. Она одна знает ее так же, как знаем мы сами, она помнит множество далеких, дорогих для нас мелоч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и остаются первыми радостными волне-

ниями нашего сердца».

В книге Кун-Суук Шин очень много боли. Но сильнее всего меня затронул небольшой эпизод, не болезни, не лишения, не откровенная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Эпизод вызвал у меня поток слёз. Этот отрывок очень близок мне:

«Мама всегда очень беспокоилась и просила тебя не летать на самолетах, но, когда ты возвращалась из очередной поездки, она подробно расспрашивала обо всем:

- Какую одежду носят китайцы? Как индейцы носят своих детей? Какое самое вкусное блюдо ты попробовала в Японии? Мама засыпала тебя бесчисленными вопросами, а ты всегда отвечала лаконично:

- Летом китайцы снимают рубашки и разгуливают в таком виде. В Перу я видела индианку, которая несла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в мешке, привязав его к поясу. У японцев еда слишком сладкая.

Когда мама не унималась и задавала еще больше вопросов, ты раздражалась и выпаливала: - Я расскажу потом, мама! Но потом ты просто не могла найти время и продолжить разговор, потому что всегда была занята».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думывались, что мама тоже хотела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и увидеть мир. Безумно груст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о котором я буду думать ещё долго.

«Пожалуйста, позаботься о маме» - книга, напоминающая о том, как важ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маме,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ей и её интересам,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вместе и никогда не быть равнодушны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мому близкому человеку.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победила на местных выборах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одержала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местных выборах, состоявших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1 июня.

Её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няли 12 из 17 мест губернаторов провинций и мэров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страны. Остальные 5 мест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 том числе, долж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где оппозиционный кандидат Ким Дон Ён с минимальным отрывом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д Ким Ын Хе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На посту мэра Сеула остался О Сэ Хун, а мэром Инчхона избран Ю Чжон Бок. Оба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Об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до, об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до, провинцию Канвондо, города Сэчжон, Тэчжон, Тэгу, Ульсан и Пусан также возгл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Мы благодарны людям за поддержку, которую они нам оказали», -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Ли Чжун Сок, комментируя итоги выборов.

Кроме долж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заняли должности мэра Кванчжу, губернаторов обеих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до и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до

KBS World

ВОЗ: В КНДР ухудшается ситуация с COVID-19

2 июн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ыявлены 96.600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 ссылкой на данны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Суточный прирост числа заражённых третий день подряд превышает 90 тыс.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данным, общее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с конца апреля составило 3.835.400 человек, а общее число умерших — 69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составляет менее 0,0002%. Однако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высказывают сомнения по поводу достоверности этих данных. Похожей позиции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программы ВОЗ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айкла Райа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З не располагает доста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чтобы дать адекватную оценку ситу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днако есть повод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ситуация ухудшается.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т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с учётом низкого уровня вакцинаци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ВОЗ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РК и Китаем.

KBS World

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две награды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ы завоевали сразу две высшие награды на самом престиж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мире.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75-го Канн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вшейся 28 мая, Пак Чхан Ук получил Приз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за свой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Это его третья награда в Каннах. В 2003 году фильм Пак Чхан Ука «Олдбой» был удостоен Гран-при, второго по величине

приза фестиваля, а в 2009 году его фильм «Жажда» получил Приз жюри, третью по значимости награду.

Приза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удостое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Сон Ган Хо за роль в фильме «Брокер» япо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Хирокадзу Корээды. Сон Ган Хо стал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актёром удостоенным высшей награды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США и Японии встретятся 3 июня в Сеуле

3 июня в Сеуле состоится встреча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им Гона,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она Кима и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Японии Такэхиро Фунакос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МИД, для Ким Гона это будет первая очная трёх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меняются мнениями по дальнейшим мера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е. Вероятно, они затронут возможные меры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 смягчению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дыдущая трёхсторонняя встреча проводилась в феврале в Гонолулу.

Новый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27 ма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ручил новому директору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разведки Ким Гю Хёну удостоверение о назначении на должность. Ранее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разведки утвердил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В ходе слушаний Ким Гю Хён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сборе внешней информации подобно израильской спецслужбе Моссад. Он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укрепить операти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пецслужбы в целях осуществл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В тот же день Юн Сок Ёль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апортами о повышении званий членов высшего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ыполняющих серьёзную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в нынешней непростой ситуации. Президент упомянул продвигание плана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системы обороны 4.0», подчеркнув важность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В РК появится Центральна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инфекционная больница

В РК определили мес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нтрально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инфекционной больницы. Как сообщили 27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для создания данного объекта была выбрана территория расположения Инженерного корпуса армии США в столичном округе Чун-гу.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ещё до начала работы объявляло о планах создания такой больницы. В апреле семья покой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Samsung Group Ли Гон Хи пожертвовала 700 млрд вон (56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призвав власти использовать средства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лучшей в мире инфекционной больницы. Территория размещения Инженерного корпуса армии США была выбрана из-за удобн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в центре Сеула и соответствия ряду условий. Туда же будет перенесён На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на 800 коек.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ходит процедура выкупа земли 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завершится к 2024 году, 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 в 2027 году. Изначаль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закончить в 2026 году, но сроки были отодвинуты в связи с выбором нового места и расширением масштабов проекта.

К 2050 году пожилые люди составят более 40% населения РК

В 2050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трудоспособных 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64 лет сократится с 37 млн 380 тыс. человек в 2020 году до 24 млн 190 тыс. человек. Их доля в населении страны сократится с 72,1% до 51,1%.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6 ма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окращение коснётся 16 из 17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стран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города Сэчжона, где численность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растет на 48,1%. Если в 2020 году на 100 трудоспособных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риходилось 38,7 неработающих по возрасту,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и другим причинам, то в 2050 году их станет 95,8. Кроме того, в 13 из 17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ожидается сокращение населения.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вырастет с 8 млн в 2020 году до 19 млн в 2050 году. То есть, их доля составит 40,1% населения.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школь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РК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растёт число школь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в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ёжной политики,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160.058 таких школьников. Это на 8,6%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69,6% из них - ученики младшей школы, 21,2% - средней школы, 8,9% - старшей школы.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школьников в РК неуклонно сокращается, а количество учеников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растёт. Их доля в общем количестве школьников выросла с 0,9% в 2013 году до 3%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жду тем,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сокращаться число подростков и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24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оно составило 8 млн 147 тыс. человек или 15,8% населения. Это на 0,4%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RKI)

Сеул станет жестче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КНДР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хочет смирить Пхеньян с помощью ООН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США, пока Ким Чен Ын готовит новый ядерный взрыв

Проведенные 25 мая Пхеньяном очередные за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й подход к подобным действиям КНДР.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в Сеуле, отныне они намерены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подобные вызовы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а куда активнее и жестче, что может обострить ситуацию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Однако, такой вариант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ет духу консерваторов, ч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н Сок Ёль с 10 мая занял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Три военных принципа

Предыдущую администрацию Южной Коре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где правили демократы во главе с Мун Чжэ Ином, многие критиковали за чрезмерное старание не разозлить Пхеньян ради, как в итоге оказалось, бесполезных попыток наладить меж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иалог. Это в полной мере касалось и разного рода провокаций КНДР вроде тестов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Однако н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в Сеуле с готовностью ухватилось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что с ним «всё будет совсем по-другому» и с Пхеньяном никто больше не будет играть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политекс.

Комментируя новую позицию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Тхэ Хё заявил, что теперь Сеул в отношении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ов КНДР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исходя из трех принципов». Официально новый подход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трех военных принципов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емедленно будет публиковаться перви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которую получают военные о запусках, с характеристикой видов испытанных устройств, разделяя их на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БР), «неопознанные снаряды» и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МБР). При демократах регулярно бывало, что Сеул задерживал публикацию данных, а ракеты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дипломатии упорно именовали «неопознанными летающими устройствами» или «снарядами», даже если была уже ясна конкретная модификация Б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нет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собственными военными мерами, показывая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Пхеньяну действовать в стиле «ракета за ракету».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е будет больше стесняться, как заявил Ким Тхэ Хё,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правдиво описывающих ситуацию выражений. Это было еще одной шпилькой в адрес предыдущ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которое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не 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избегало называть запуски провокациями и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ть их.

Третье новое правило — координация общего ответа с союзника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США, а также Японией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Lee/XinHua/Global Look Press

Сеул позовет на помощь ООН и США

Реализация нового алгоритм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твета» был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а в день ракетных запусков КНДР 25 ма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перативно опубликовали информацию обо всех запусках, снабдив пояснениями по возможным видам ракет — все они были названы баллистическими ракетами, а потом было уточнено, что одна из них, скорее всего, был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а две другие — БР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Там же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высоте и дальности полета каждой из них.

Кроме того, реализуя второй принцип,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свои ответные ракетные стрельбы, запустив из района города Каннун собственную БР «Хенму-2». Все эт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координации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военными, которые запустили ракету из оперативно-тактического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ATACMS.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час после запуска КНДР первой ракеты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Сеуле на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был созван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уда прибыл лидер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ь. Он лично продолжил реализацию второго принципа, назвав ракетные запуски КНДР «серьёзной провокацией» и «нарушением резолюций СБ ООН», дав указание согласовать дальнейши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ы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плане реализации третьего принципа в течение пары часов один за другим прошли телефонные переговор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помощников президен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тороны сошлись в том, что запуски КНДР нарушают безопасность, бросают вызов и на них необходимо реагировать по линии ООН путем вве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анкций, активизацией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броски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США. Подоб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юзников произошло впервые почти за пять лет. До сих пор Сеул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более мягко настроенных к КНДР демократов избегал подобных действий, стремясь обычно спускать ситуацию на тормозах.

Ким Тхэ Хё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анная схема быстрого, принципиального и жесткого ответ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ровокации» теперь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сегд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Юн Сок Ёл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хотя и не в таком четком и артикулированном виде, но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е является чем-то особенно новым. Сеул придерживался подобной позиции, в частности, при правлени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президентов Ли Мен Бака и Пак Кын Хе. При этом Ким ТхэХё был у Ли Мен Бака секретарем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и стратегии. Так что, похоже, чиновник просто сдул пыль со своих же конспектов и реанимировал ранее существовавший алгоритм, придав ему более стройный вид.

У Пхеньяна все готово к новому ядерному испытанию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Юн Сок Ёлем стал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на практике свои обещания выстраивать с позиции силы отношения с Пхеньяном и не давать спуску последнему, если тот будет пытаться обострять обстановку.

Это было заметно и по последующим шагам Сеула. Когда Китай и Россия 27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правом вето, заблокировали предложение США и союзников ужесточить сан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то тут же Вашингтон, Сеул и Токио устроили собственное совещание и решили отреагировать уж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е так уж сложно угадать, что последует дальше, так как КНДР была весьм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а в своих шагах в подобных случаях.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Пхеньян использует обновлённый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подход» Сеула как предлог для нагнета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Тогда уже в дело могут пойти не только ракеты, но и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выкатывание артиллерии с подготовкой к стрельбам с прицелом на Сеул и/или провоцирование вооружё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на сухопутной или морской границе, разделяющей Север и Юг. Юн Сок Ёль же и его команда будут вынуждены действовать согласно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новой «инструкции», а потому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удет регулярно обостряться.

Очередной раунд дан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с больш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произойдет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Как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и на днях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СШ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ла подготовку к очередному ядерному испытанию.

Если перефразировать недавнее заявление нового директор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и, то Ким Чен Ыну осталось лишь нажать кнопку — «приня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так как технически к ядерному взрыву всё уже готово.

Олег Кирьянов (News.ru)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2 г. — 581 руб. 5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ЗПК представили комиссии Гос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ям

Секретарь Госсовета,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Игорь Левитин 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и заседание комиссии Госсовет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Инвестиции». На совещании с регионами озвучили обновленные параметры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ЗПК предст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Мурат Кереев.

– В случае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повысится вовлеченность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работу по запуску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убъекты РФ смогут подготовить заключения на проект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ценив их в контексте местной экономики. Документ станет гарантией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й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для бизнеса, — заявил Мурат Кереев.

Заключ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защите и поощрени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 это очень ответственный и серьезный шаг со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а, фактически готового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зафиксировать для инвестора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авила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и полагающиеся ему преференции.

– Перед принятием такого рода реш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и позицию региона, его властей, населения. Внес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зволят нам подавать свои заключения по СЗПК. При положительном, когда проект востребован регионом, его жителями, способен обеспечить мультипликативный эффект в экономике,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 соглашение будет заключено, а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 При отрицательном, когда выгоды региона неочевидны или сомнительны – отклонен. Кроме того, сам факт включения в процесс согласования СЗПК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зволит нам лучше прогнозировать доходные и расходные части бюджета, своевременно определять потребности в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ах, план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ты на не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комиссии Госсовет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коре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Парламента вынесут и другие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о СЗПК. Они содержат новые критерии новизны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остав стабилизационных оговорок, форс-мажор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ересмотрены и упрощены подходы к возмещению затрат н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У бизнеса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кать заемные средства под проекты СЗПК.

– Многие сложные развилки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удалось пройти без создания избыточных рисков для бизнеса, например, в части налогов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хотя изначально компании негативно воспринимали это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онимаем, что некоторые новации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можем оценить не раньше, чем пройдет первый пул заключ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которые ждут подписани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лександр Шохин.

Обсудили и внедрение нов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тандарта. Он призван создать единый маршрут инвестора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Стандарт внедряют 45 субъектов РФ.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его качественно оценят деловые объединения.

– Для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егодня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задачей стоит наращивание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оэтому, как никогда ранее, нам важен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тандарт – правило, устраняющее проволочк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е барьеры, дающее максимальную прозрачность в понимании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Уверен, что дан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улучшени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в региона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ассмотрели предложения регионов для стабилизации инвестклимата — восемь одобрены. Среди них, в том числе, изменение подхода к дотации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налоговому вычету. Предлагается убрать норму бюджет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экономически развитым регионам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дотацию.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едложено расширить отбор на субсидию для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технопарк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опросы рассматривает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Госсовета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COVID-19.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организовал 5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приятие увеличило объемы вылова в прибрежной зоне Кунашира и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и собственным флотом и объемы переработки сырья в цеху, а также сократило сроки добычи.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по развитию предприятия, реализуемой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стартовала в 2018 году.

–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рыбодоб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едет масштабный промысел горбуши, кеты, минтая, трески, сельди тихоокеанской, сардины-иваси, камбал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 других видов биоресурса.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предприятия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пособного принести значимый социально-э-

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составил более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Реализуя свои проекты, предприятие закладывает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на будущее,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иобретено универсальное траулерное судно СТ «Асбьорн», имеющее на борту несколько различных орудий лова (трал, невод). Срок хранения улова составляет до 5 суток с момента вылова, общая емкость хранения улова до 800 тонн в сутки или до 4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Также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проекта предприятие приобрело комплекс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сырья, что сформировало суммарную мощность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цеха в 200 тонн сутки; скороморозильные камеры мощностью до 200 тонн в сутки по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 перевалке контейнеров приобретен большегрузный транспорт, оборудована подогреваемая бетонированная контейнерная площадка.

Вс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добычи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и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 переработки сырья в цеху на берегу.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оздано 49 рабочих мест.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на предприятии 129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итогам 2021 года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выплатил более 2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логов в бюдж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 2018-2020 годы рыбокомбинату оказана поддержк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азмере более 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наше предприятие, да и вся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ая область региона в целом, сделали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е вложения в развитие добычного флота, береговых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мощностей. Построены современные заводы. Очень мног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яли внима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лососевых рыболовных заводов, что,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является существенным вкладом в развитие области и отрасли, — заяв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редприятия Константин Коробков. – Сейчас начинается следующий этап – получения результатов того, во что вкладывались силы и ресурсы. Все должно быть очень позитивно. Наша область в рамк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бассейн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и налоговых отчислений, выходит на передовые рубежи.

Напомним, в январе 2022 года в рамка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на острове Кунашир предприятие заверши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ввел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вод по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ных отходов и свежей рыбы в муку и рыбий жир. Эта продукц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кормов для животных, рыб в аквакультуре. В результате на рынке рыбьего жира и рыбной муки за счет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и конкурентной цены увеличена доля оте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Около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Завершилось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выбору территорий и дизайн-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ло на платформе 65.gorodsreda.ru.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свой выбор в пользу той или и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делали около 5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конча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когда завершится проверка всех поступивших голосов на достоверность и корректность заполненных данных.

– Мы видим, как преображаются наши города и села –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дом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дворы и появля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Здорово,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той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ами жители. Чувствовать свою причастность к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кто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рритории, набравшие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горожан, попадут в список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 конкретн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еречень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ет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территорий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могл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лет. Всего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было выставлено 39 территорий и дизайн-проектов, по два – три объекта от кажд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За 5 лет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благоустроено 116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 более 60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роект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омог исполнить мечту холмского школьника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Юрий Им подарил мальчику велосипед.

В середине мая мама двоих детей Оксана Валентиновна на приеме у губернатора рассказала о трудностях,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ась её семья. Так, сахалинка не может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При этом у женщины есть среднее специ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филь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помочь жительнице Холмска найти работу. А бизнесмен Юрий Им пообещал подарить её девятилетнему сыну велосипед.

– Я изучил историю семьи Оксаны Валентиновны. Она вызвала во мне эмоциональный отклик.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значит остаться одной с двумя детьми, тем более, когда у сына есть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велосипед будет радовать ребенка. Ведь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пользой, тем более наступает лето, — рассказал Юрий Им.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позволяе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сходя из насущ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той или иной семьи – купить продукты, собра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приобрести мебель и бытовую технику. Юрий Им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проекта и уже оказал помощь нескольким нуждающимся семья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омог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для семьи из села Новиково и в ремонте квартиры невельской семь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брые дела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сред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будет проведен конкурс на получение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званный поощрить самых щедрых и инициативных меценатов и волонтеров.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на сайте <https://eks.sakhalin.gov.ru/> в разделе «Добрые дела». К участию допускаются любые коммерческие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олонтерские движения и отдельные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ли помощь в 2021-2022 годах.

Прием заявок уже стартовал и продлится по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Оценивать значимость инициатив будет экспертна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лидер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финал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определят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на все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80 семей из Смирных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тят новоселье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строит многоэтажку в райцентре. В доме,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предусмотрели 80 квартир. Возведение объекта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Олонцев.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стойны того, чтобы жить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наращивании темпов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регионе.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отметили 4 тысячи островных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ключи от современ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5 тысяч.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развернута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К примеру, в селе Рожин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сдали два дву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Кроме того,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ты в райцентре, 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утся в селе Победино,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Олонцев.

Пятиэтажку в Смирных возводят на Улице Чехова, 19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работ уже выполнена. Сейчас строители занимаются внутренней отделкой помещений. Жильцы получают квартиры «под ключ» – с ремонтом, сантехникой и электроприборами.

Продолж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Здесь уже появились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и парковка. Кроме того, во дворе предусмотрят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бытовых нужд и зеленые зоны.

В ходе поездк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осмотрел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Победино, где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 строить дом на 24 квартиры. Новоселье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отметя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азработке –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в райцентре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Возле памятника Леонида Смирных расположатся четыре пятиэтажных жилых дома на 220 квартир. Возвед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2022 – 2023 годах.

Отметим,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а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жил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ло региону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Фонда ЖКХ.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этих средств будут улучшены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те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аварийными уже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Успех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в регионе отмечают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Так,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го заседания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Фонда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вице-премьер Марат Хуснуллин особо отметил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новь отметили как лидера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2021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почти 4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2022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еезд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сего в ближайшую пятилетку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ат около 3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боре стипендиантов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от Фонд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2022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оводит отбор стипендиантов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с целью воспита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внесут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Прос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цев-студентов(магистрантов) из Китая, Росси и стран СНГ проявит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 Квалификация: Студенты(магистран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знакомьтесь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наборе (Лица квалификации,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и преимущества)
- Поддержка
 - Китай• Россия • Казахстан : US\$ 1,200 (1 чел./1 год)
 - Другие страны СНГ : US\$ 1,000 (1 чел./1 год)
-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①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айте KoreaNet (www.korean.net), Вход ⇒ ознакомление с информацией в 'Ведущиеся проекты' или 'Объявления' ⇒ Проверить объявление ⇒ перейти в нижнюю часть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онлайн', ⇒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и распечатать
- ② Подпишите распечат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и подайте его со всеми подтверждающими документами в ближайш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ский орган Кореи (посольство, консульство и др.)
-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6 мая(Пт.)~10 июня (Пт.) 2022 г.
- ※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полную подачу заявления онлайн и сдачу документов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кий орган в определенный период.
- Расписание после с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 Оценка и отбор стипендиантов(Июль - Август)
 - Оглаш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отбора: Вебсайт KoreaNet (Сентябрь)
 - Оценка и отбор стипендиантов(Сентябрь - Октябрь)
 - Выдача сертификатов (Октябрь)
- Справка: Полностью ознакомьтесь с содержанием объявления о наборе и направьте ваши вопросы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на корейском ил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и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итае,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 Возникновение ошибок на вебсайте при составлении заявления: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Менеджер Ким Ёнгмин (youngmin@okf.or.kr, +82-64-786-0292)
- Отбор стипендиантов и другие вопросы: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Старший менеджер Юн Хесон (yhs6543@okf.or.kr, +82-64-786-0272)

С подроб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재외동포재단, 11기 OKFriends 봉사단 제주 해녀 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 진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11기 재외동포재단 봉사단(OKFriends)과 함께 제주 해녀 문화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을 지난 5월 28일(토)~29일(일) 제주 고산리 인근에서 진행했다.

※ OKFriends 봉사단: 국내 대학생(재외동포 포함)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 및 초청행사 등에 참여 및 봉사활동 시행(11기 131명 선발, 활동 중)



제주 출신 전통무용가(고춘식)와 고산어촌계 해녀들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각국 출신 OKFriends 봉사단 학생들에게 제주 해녀에 대한 이해, 해녀들의 춤과 노동요에 얽힌 역사적 의미와 감동을 전해 주었다.

해안가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제주도지질공원(차귀도, 수월봉, 산방산, 용머리해안길)을 전문해설사와 동행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제주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해안길을 따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제주바다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플라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다시 만난 우토로,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를

'기억할게우토로지원사업'의 협력기관인 지구촌동포연대의 최상구 국장이,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식에 참여하고 방문기를 써 주셨습니다. 당일 우토로 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 따라가 볼까요?

높아진 국경, 사라지지 않은 우리안의 장벽

우토로를 처음 방문했던 건 2016년 6월, 이후 2019년까지 여섯 번을 우토로에 다니며 어느 정도 가는 법은 익숙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 익숙함을 초기화시켜버렸다.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식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했고, PCR 검사와 자가격리가 필요했다. 또한 입국 정책이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주한일본대사관, 후생성, 외무성 홈페이지들을 찾아다니며 수시로 최신 정보를 확인했다. 다행히도 비자는 추가 서류요구 없이 나왔고, PCR 검사도 음성, 드디어 2년을 넘겨서 우토로를 방문할 수 있었다!

문득, 한국을 방문하려면 노심초사하는 조선적(朝鮮籍: 1947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면서 조선반도 출신자라는 의미로 부여한 기호) 재일동포들이 생각났다. 재일동포들은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이들도 있고, 분단국가의 국민이기를 거부하면서 조선적을 계속 유지하는 동포들이 있다. 이들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증명서 발급이 정권에 따라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 비자신청



과 대기를 이들의 여행증명서 발급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경을 넘는다는 것, 현해탄을 건너는 것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3인의 3일간의 자가격리 속 의기투합

금번 우토로 방문단은 3인. 지구촌동포연대 활동가인 필자 외에 도서출판 품의 정미영 대표("우토로 여기 살아왔고, 여기서 죽으리라" 역자 및 편집자)와 김도희 감독(나는 우토로 마을을 기억합니다 연출)이었다. 도착 하자마자 3일의 격리 기간 중 "우토로 여기 살아왔고, 여기서 죽으리라"의 저자 나카무라 일성과 한국의 신문사 간의 인터뷰를 하는 등 방문단 3인은 각자의 일로 분주했다. 그러다가도 식사시간에는 모여 이야기하며 나카무라 일성 작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서울, 부산 등에서 열기로 하며 의기투합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인 4월 27일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가졌던 터라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오

고 있었다. 비 내리는 오사카에서 기념식 당일 날씨를 걱정하며 초조하게 격리해제를 기다렸다.

다시 찾은 우토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4월 30일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식이 열리는 오전, 오사카 숙소를 출발하여 우토로마을에 도착했다. 비오던 오사카 날씨와는 달리 햇살이 강한 맑은 날씨였다. 오랜만에 보는 마을회관 에루와는 그대였지만, 그 옆의 집은 작년 재일동포를 혐오하는 자의 방화로 인한 화마의 상처가 그대로 보였다. 마을 입구로 가보니 1기 시영주택 앞에는 깨끗한 차도가 생겨 기념관 입구와 연결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마을을 동서로 가로질렀던 골목길은 이제 막혔다. 남쪽 자위대 앞길을 따라 1기 시영주택을 지나니 2기 시영주택공사 현상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호 계속)
글, 사진 | 최상구 KIN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민들레실버대학', 오산 사할린귀국자와 만드는 '2022 설레이는 고국탐방' 화제

민들레실버대학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된 후 60년 만에 귀향해 경기도 오산시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들이 고국에서 정착하는 것을 돕고자 '2022 설레이는 고국탐방'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고국 탐방은 바르게살기 김종필 오산시협의회장, 박현미 인셀텀 조이폴점장, 지역 단체 및 기업, 오산시 민들 등이 지원하고 있다.

민들레실버대학은 최근 오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 및 홀몸어르신들 50여명과 함께 한국의 고유문화와 발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올림픽공원을 탐방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올림픽홀(클래식 공연관람, 명사초청 특강)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축제 ▶세계평화의문·평화의성화 탐방으로 이뤄졌다.

문옥자 영주 귀국한 어르신은 "제가 알기에는 벌써 우리가 8년 동안 (민들레실버대학)과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정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구경도 잘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다"며, "다음에도 우리 모두 이렇게 즐겁게 만나서 또 좋은 시간 갖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명순 민들레실버교실 대표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2009년부터 오산시에 동지를 틀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를 도와야겠다 생각했다"며,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변화·성장을 이변 여행을 통해 고국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힐링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신 오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장은 "우리 동포들이 (팬데믹 이후) 오래 간만에 같이 모여 여행도 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순서 중 명사초청 교육시간도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라며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니도록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서로 화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해주신 민들레실버대학 관계자와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할린 영주귀국자들과 함께한 '고국탐방 여행'은 거리와 프로그램에 따라 당일 또는 1박2일로 매년 진행된다. 2015년부터 진행한 본 여행은 경기(수원·화성), 강원(강릉, 속초), 충청(보령, 충주), 부산, 서울 등 전국 권역별로 역사탐방, 체험, 명사초청 강연, 공연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호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ы знаменит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 "Катюша", "Эх, дороги", "Смуглянка", "Казаки в Берлине", "День Победы" и другие. Вместе с оркестром выступит Лариса Качайкина. Солистка исполнит песни "Черноглазая казачка", "Если б не было войны", "Мужчины", "Сахалинский вальс".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Эта музыка — вечна",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사할린 주민들에게 곰을 피하는 방법과 올해 몇 마리의 곰이 사살됐는지 설명

5월 25일(수)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 자연의 역사> 강연의 일환으로 '불곰 개체수 현황과 이들 보호조치, 인간과 상호관계 문제'라는 대중 학술 강연이 마련됐다. 강연자는 사할린주 산림 및 수렵경제청의 다닐 두 다레브 부청장이었다.

강연장에는 사할린주 관광 및 휴식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비롯해 대학생들, 활동적인 등산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할린주에는 현재 곰 3,8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

최근에 사할린 지역에 불곰의 최대 마릿수는 4,500마리로

2017년에 관찰되었다.

사나운 야생동물이 많을수록 이들을 향한 강제적 사살도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2017년에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곰들 120마리를 제거해야 했는데 일년에 평균 제거 수치로 보면 3배가 적다. 올해 이미 5마리의 곰이 제거되었다. 사할린 야생곰의 출현으로 위협이 되는 인근 지역에 대해 불안해진 주민들이 산림 관리사무소에 26건이나 신고했다. 섬들에 서식하는 일부 곰의 몸길이가 2.2m에 달하고, 몸무게는 500kg이상이므로 이런 곰은 '챔피언'급으로 구분된다. 이런 불곰이 달리는 속도는 시속 60 km이며, 6미터를 뛰어넘고, 수영 실력도 뛰어나다.

예를 들면 캄차트카의 곰들은 그들에게 적합한 먹이가 있는 숲속 섬까지도 헤엄쳐 가곤 한다.

강의를 끝내면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곰과 마주쳤을 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자료를 나누어주었다.

Сахалинцам рассказали, сколько медведей отстрелили в этом году и как этого избежать

25 ма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в рамках лектория "Ест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состоялась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ая лекция "Состояние популяции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Меры по их охране.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человеком". Лектор — Данила Дударев,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лекцию пришли те, кому интересна сфера туризма и рекре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студенты и просто активные походники.

Как отметил специалис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итает около 3800 медведей.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аксимальная численность бурых хищников в регионе — почти 4500 — наблюдалась в 2017 году.

Чем больше хищников, тем чаще приходится прибегать к их вынужденному отстрелу. Так, в 2017 году пришлось ликвидировать 120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медведей, тогда как в среднем в год эта цифра в три раза меньше.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пришлось произвести отстрел пяти медведей. 26 раз обеспокоенные граждане сообщали в агентство и лесничества об опасном соседстве с островным хищником. Некоторые особи, обитающие на наших островах, впечатляют размерами — длина тела достигает 2,2 метра, вес — до 500 кг и больше, и отличаются "чемпионс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бурый медведь может бежать со скоростью 60 км/ч, прыгать в длину до 6 метров, отлично плавать. Так, например, медведи с Камчатки вплавь добираются до острова Шумшу, где есть для них подходящая кормовая база.

В конце лекции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раздали памятки, как правильно себя вести при встрече с медведем.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Реклама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